

5·31지방선거 후보들 ‘꿈틀꿈틀’

불자들도 ‘젠걸음’

불교계 대표적인 젊은 일꾼 정우식(38)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정책기획팀장. 요즘 그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불교계에 몸담은 지 10년 만에 ‘바깥사람들’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조계종립 동국대 철학과 88학번인 그는 1991년 총학생회장 당선되는 등 소위 운동권 학생이었다. 졸업 후 1996년 대한불교청년회 조직부장 소임을 맡으며 자연스럽게 불교계에 입문했고, 조계사 청년회장, 조계종 서울광역시교구 사무처장, 참여불교재가연대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그는 올 5월 3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견지동 45번지’가 포함돼 있는 서울 종로 제2선거구 시의원으로서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올부터 급여... 불교계 일꾼들 ‘출사표’

‘실천하는 삶’ 영역 넓히기 발원

“정치인양성도 포교 토대” 의견 확산

불교계 대표적인 젊은 일꾼 정우식(38)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정책기획팀장. 요즘 그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불교계에 몸담은 지 10년 만에 ‘바깥사람들’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전국 3500여명의 지방의원들에게 각각 4000~7000만원의 연봉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30~40대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세가지 정도로 분류된다”며 “지루한 도시생활을 접고 고향에 정착하려는 출향인들, 지역에서 쌓은 성취를 공적 영역으로 넓히려는 토착인들, 고용불안 시대에 인생전환을 모색하려는 직업 정치지방생들”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지역에서 쌓은 성취를 공적 영역으로 넓히려는 토착인’ 불자 및 전불교인들이 상당수 도전장 내릴 것으로 보

인다. 분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김홍용(종로구청장) 남상해(하림각 사장) 정창희(시의원) 이유택(송파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에서는 박홍수(한나라당 중앙위 부위원장)씨, 가평에서는 김영국(씨)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해 대구에서 이재용(환경부장관) 김태일(열린우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남해진(한나라당 대구시당 부대변인) 이훈(구청장)씨 등이, 포항에서 김순견(도의원)씨 등이, 경주에서 백

상승(시장)씨 등이, 군위에서 장욱(도의원)씨 등이, 김천에서 김정기(도의원) 김성규(前 국정원 관리관) 김용대(변호사) 김종섭(前 도의원) 박판수(시축구협회회장) 정경수(변호사) 최대원(교리장학회장)씨 등이, 영주에서 권영정(시장) 우성호(도의원) 박시균(前 국회의원)씨 등이, 영천에서 손이목(시장)씨 등이, 예천에서 김수남(군수)씨 등이, 구미에서 남유진(前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국장)씨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는 김종관(향토문화연구원장) 김성길(시의원) 안성민(시의원) 안영일(구청장) 이종수(前 부산시장 감사관) 박인재(사업)씨 등이, 창원에서는 박완수(시장) 하해성(법무사) 허성무(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손석형(경남통일연대)씨 등이, 마산에서는 조영파(前 부시장) 황환관(시장)씨 등이, 거창에서 강석진(군수)씨 등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에서는 황일봉(남구청장) 송병태(광산구청장) 범일규(풍경소리 광주모임대표)씨 등이 손꼽히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김진선(도지사) 이광재(국회의원)씨 등을 비롯해 평창에서 장문혁(오산레저대표)씨 등이, 춘천에서 조명수(청와대 인사제도개선비서관) 등이, 속초에서 장세호(前 속초시지역경제과장) 조동룡(변호사) 채용생(前 속초부시장)씨 등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불자 예비후보들과 측근들은 “우리나라 인구 중 불자가 가장 많지만 불자 정치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각종 정책에서 불교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불자 정치인들을 양성해 곳곳에서 역할을 해야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길도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불자 정치인이나 친불교 정치인이 많을수록 각종 정책이나 예산 수립에 불교계 입장이 많이 반영되며, 이것이 바로 포교와 직결된다”고 경험을 소개했다.

선전규(73)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겸 전국노인위원장)은 ‘요의중생(饒益衆生·중생을 이익 되게 한다)’ 차원에서 불자들의 정치권 입성을 적극 주문한다.

선전규 고문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며 “불자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 ‘실천포교사’를 배울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준영·천미희·김주일·남동우
조용수·배지선·이은비 기자

“수행·포교로 중흥기틀 마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올 주요사업 발표

“중도실천으로 양극화 극복”... 10대 사업 ‘눈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수행과 포교로 중흥기틀 마련’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 중무기 사업기조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지관 스님은 이날 “제32대 총무원 임기 중 중흥의 기틀 마련”을 중심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안정속의 중흥’을 기조로 올해 중단운영 계획을 밝혔다. 사진=고영배 기자

‘일연·삼국유사 대제전’ 열린다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 맞아 7월 6일부터 한달간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는 ‘일연·삼국유사 대제전’이 일연 탄신일인 7월 6일(음 6월11일)부터 일주일인 8월 1일까지 한달 간 은혜사와 인각사, 팔공산 일원에서 성대히 열릴 예정이다.

“반만년 민족혼을 찾아 나서는 은빛바다 대항해”를 주제로 열리는 ‘일연·삼국유사 대제전’은 팔관회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민족문화 및 불교문화의 멋과 흥을 관람하

는 올해 중무기 사업기조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지관 스님은 이날 “제32대 총무원 임기 중 중흥의 기틀 마련”을 중심으로

고 체험할 수 있는 민족문화예술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 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한 남북한 공동학술대회와 청소년을 위한 민족정체성 교육의 장인 인각청소년민족문화학교, 민족 고대사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삼국유사 실화 답사여행, 통일을 희망하는 열린마당, 일연문화상 시상, 템플스테이 팔공산 달빛산행, 전통놀이 문화 체험의장인 인각 팔관장 등 다채로운 참여 체험 마

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은혜사 주지 범타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행위원회는 1월 19일 경북대학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각종 행사의 기본 계획을 수립 2월부터 준비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배지선 기자**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회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 상량사, 영가천도, 불사)

영하는데 그 힘을 모아 갈 것”이라며 “중단의 가장 강력한 근본자원이 ‘수행’과 ‘포교’를 통해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중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작공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이 올해 목표라고 밝힌 지관 스님은 또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단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이웃을 위한 이타행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승가교육체계 정립 △지역포교활성화와 사회적 화합 △중무행정 교구 이양 등을 목표로 10대 핵심사업과 21대 주요 사업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은혜사 주지 범타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행위원회는 1월 19일 경북대학교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각종 행사의 기본 계획을 수립 2월부터 준비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배지선 기자**

천태·진각종 균승 파송 ‘논의 활발’

윤국방, 3대 종교지도자와 ‘소수종교...’ 의견 개진

천태종과 진각종의 균종장교 파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월 19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균종장교를 책임지고 있는 종교지도자와 면담을 갖고 균종제도의 발전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방부장관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조계종 균종교구장 일연 스님, 한국기독교 교단연합회 이사장 박선희 목사, 한국천주교 교구장 이기현 주교가 참석해 40여분간 화합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는 소수종교의 균종장교 운영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년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도반의 향기 17년 기출청소년들의 심춘 유재성씨

공원임장료 폐지 앞두고 4년

태고종 신년사업계획 8년



한창 바쁜 연등공장 9년 일상용어에 수행이 18년 세계의 불교음악 23년 다시 돌아온 수덕여관 28년

어졌다. 국방부 균종실 관계자는, “불교의 경우 천태종과 진각종의 균종장교 파송에 관해 종단간 합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면담자리에서 “소수종교에 대해서 민, 군간의 정책공동체를 구성해 명확한 기준설정을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소수종교의 균종장교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겠지만 종교계의 자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도 사회통합상 종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두식 기자**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황우석 교수 문제 함께 풀어갑시다.)

생명공학의 ‘생’자도 모르는 산승(山僧)들이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빈부에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와 상관없는 자기 성찰의 종교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진리 추구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황우석 사건’의 문제를 거론하는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의 과정이 자기 성찰 없이 너무 양극화로 치닫거나 소모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기적인 논쟁이 결국 조작으로 판명됨으로써 우리 모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른 이상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도대체 어디까지 조작에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대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징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여전히 모종의 ‘음모론’들이 유행처럼 떠다니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황우석 박사 자신도 속았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꾸민 당사자라면 겨우 6개월의 시간을 벌이 뭐가 달라진다고 저리도 간절하게 호소하겠습니까? 결국 사는 게 이수라 지옥일 텐데요.

사람이든 일든 모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법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것만을 들추자면 한도 없을 텐데, 지금 세간은 우선 마녀사냥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보자는 식입니다. 물론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만, 논쟁 조작의 당사자와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인정해야 할 성과마저 모두 평가절하 되거나 내용맹이되는 것은 국민차원에서든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상처는 굼터졌으니 마침내 새 삶이 돌아야 합니다. 황우석 개인의 책임만으로 진정 새 삶이 돌을 수 있다면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응분의 처사이겠지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은 국민의 상처이자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기극의 주인공이건

음모론의 희생자이건 상관없이 그는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의 과학자에 불과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이윤을 좇아 달려들었던 기업이나 투자자,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를 앞장세웠던 정치인, 앞 다투어 그를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언론 등 사회 주요 구성원들의 책임 또한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아 함께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황우석의 허물은 결국 우리 모두의 허물입니다.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버리는 게 쉬워도 쌓기는 어렵습니다. ‘죄 없는 자들로 치라’고 했던가요? 황박사의 허물이나 허물이라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으로 돌아가 그가 참회와 더불어 풀이갈 수 있는 시점을 찾아주세요. 이미 황박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셸이, 그 치열한 참회의 방식 또한 과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의중군의 과학자로 돌아가 과학적 성과를 내는 것만이 진정한 참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 과학계 내부의 분열과 국가적·경제적·정치적·종교적 갈등으로 비추지는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돈마저 어쩌면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비싼 수업료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탄생과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이치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호흡을 가다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회조리와 더불어 모성(母性)의 따스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객관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고대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도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경(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연관(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현봉(전 조계종 21교구본부 승공사 주지) 성관(실천승가회 회장) 수안(통도사총서암, 선화가) 일경(지리산 황매암 주지) 원택(조계종 중앙총회 부회장) 원명(홍원사 회주) 종광(중앙총회 의원) 진월(동국대 정각원 원장) 현진(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환성(영평사 주지) 철오(선우도량 공동대표) 현각(원주 명륜복지관 관장) 세영(신북사 주지) 진원(내소사 주지) 수완(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 설경(덕숭총림수좌 / 조계종 전 중앙총회회장) 무비(범어사 강사 / 전 조계종 교육위원장) 혜인(제주 약산사 회주) 현진(선원수좌회) 법웅(선원수좌회 운영위원) 홍륜(문문사 주지) 일호(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요명(동학사 주지) 일진(문문사 승가대학 학장) 혜정(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무소>